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9. Vol 254

경 제11대 충청북도의의회 개원 축하

2018. 7. 5.(목)



충청북도의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9. Vol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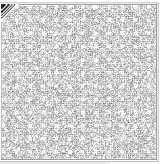
Contents

- 03 | 개원사
- 04 | 개원 축하
- 06 |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및 의정방향
- 08 |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 10 | 제366회 임시회 주요내용·건의문
- 11 |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유치 건의문
- 12 |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 13 | 도내 폭염피해 현장 점검
- 14 | 부의장·위원장단 의정각오
- 17 |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도의회 방문
- 18 |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상황
- 24 | 5분 자유발언·주요 처리의안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9 | 건강상식
- 30 | 의원논단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
- 발 행 일 : 2018년 9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꿈·희망의 터전이자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라는 뜻을 올리고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4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제11대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서른 두명의 의원은 주어진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 앞에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챙기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1대 도의회는 도민 앞에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의 길잡이이자, 감시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선 7기 충북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새 시대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감시기관으로의 책무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도민,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전 방위적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의회 내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 초당적인 협력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참 뜻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질책과 조언도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5일

충북도의회 의장

장 선 배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도의회와 함께 「일등경제 충북」 건설 실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163만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제11대 충청북도의 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 역동적인 도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6기 동안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투자유치 63조원을 달성했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2017 전국 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등 대규모 국제·국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충북인구 163만 명을 돌파하는 감격을 누렸고, 실질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고용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전국 1~2위를 달리며 「4% 충북경제 실현」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시작된 민선 7기 충북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도정 목표로 163만 도민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1등 경제 총복의 기적」을 확실히 실현하고 우리 총복을 희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도민들께서 우리 총복도의회와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대비 총복경제 4%, 1인당 GRDP 4만 불을 조기 실현하고, 5만 불 시대에 과감히 도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인 강호축을 개발해 총 복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

도록 청년복지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젊음있는 혁신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그 기반이 되는 SOC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4000억 원까지 대폭 늘리고, 농촌(農村)에 농시(農市)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수준의 생활·문화·의료 환경을 확충하는 등 농촌과 도시, 비청주권과 청주권이 다함께 행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살뜰히 보살피기 위해 2022년 복지예산 총규모를 2010년대비 2.6배까지 늘려 「소외없는 평생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향유하는 문화관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이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옛날 노자가 “이천하지심 관천하지사(以天下之心 觀天下之事)”라 하여 “백성의 마음으로 천하의 일을 보라”고 말했듯이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참뜻과 바람을 헤아려 도정에 반영하며 충북발전과 도민행복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163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년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김 병 우
(충청북도교육감)

충북교육, 도의회 · 도민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의 변화가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오늘 새롭게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년 간 충북교육은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정책들이 차근차근 실행되는 가운데, ‘함께 행복한 교육’을 향한 혁신의 토양을 일구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망하는 교육가족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충북에서 선도적인 미래교육의 모델을 창출하여 행복교육, 희망교육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시대, 교육대혁신을 이루어 기초학력부터 미래형 핵심역량까지 온전히 책임지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독서·토론 수업과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놀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로 혁신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절벽시대, 지역특화형 행복교육으로 충북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여 더 큰 배움터로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와 교육기관의 시설개방을 확대하고, 돌봄과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상생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유아교육·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온종일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충북형 교육복지 모델 구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복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공감의 시대,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아이들의 따뜻한 감성을 키우겠습니다.

교육·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교과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며, 충북 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한 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생활체육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위기의 시대,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걱정거리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초록학교, 아토피 치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것이며, 전국 최초 환경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생태교육망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건강증진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회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소통의 시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충북교육을 일궈가겠습니다.

교육청 정책을 점검·제안하며 평가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 중심의 행정지원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도교육청 사업을 축소·폐지할 것이며, 인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생명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상호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아시아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확산하여 따뜻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을 길러내겠습니다.

이택상주(麗澤相注)와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정신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도민과 늘 동행하고 공감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



충북도의회는 7월 5일 제11대 의회 개원식 갖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충북미래 선도할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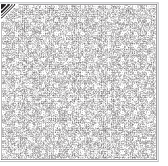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기치로 힘찬 출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새롭게 출발한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7월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전직 도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집행부 실·국·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충북도의회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서 32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6기까지 쌓아올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물들과, 그동안 연구·노력하여 습득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도의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장선배 의원(청주시 제2선거구)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황규철 의원(옥천군 제2선거구)과 심기보 의원(충주시 제3선거구)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도의회는 또 7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김영주 의원(청주시 제6선거구), 정책복지위원장에게 박상돈 의원(청주시 제8선거구), 행정문화위원장에게 전원표 의원(제천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장에 박우양 의원(영동군 제2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장에는 이



수완 의원(진천군 제2선거구), 교육위원장에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을 각각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연종석 의원(증평군선거구), 윤리특별위원회장에 이상욱 의원(청주시 제11선거구)을 선임하며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게 됐다.

도의회는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상임위원과 특별위원 선임은 의원별 희망사항과 경력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정당별·지역별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임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께 힘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도의회가 꿈과 희망의 터전이며,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는 전진기지임을 도민 앞에 당당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의장은 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충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11대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운영방향

충청북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방향을 △지방행정의 길잡이·감시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수행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강직한 의회 △소통·화합하는 의회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시대정신으로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우선 중점 추진 방향으로, 첫째, 지방행정의 길잡이이자, 감시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기조 지속, 미·중간 무역전쟁 등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선 7기 충북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새 시대에 대비한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와와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해 나가며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도정·교육행정에 비판·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해결 등을 위해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그에 걸맞는 청렴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의회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의정활동을 공개하여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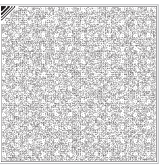
의회 문을 활짝 열고 도민, 집행부, 시민단체 등과 전방위적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이견과 갈등을 풀어내며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공간을 만들고, 의회 내의 소통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의 참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 장
장 선 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의회운영 위원회	 김영주 의원	 육미선 의원	 박병진 의원	 박형용 의원	
정책복지 위원회	 박상돈 의원 (청주시 제8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심기보 의원 (충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 (청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 위원회	 전원표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의원 (청주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 (청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경제 위원회	 박우양 의원 (영동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임영은 의원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의원 (청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청주시 제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건설환경소방 위원회	 이수완 의원 (진천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창 의원 (음성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병진 의원 (영동군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교육 위원회	 이숙애 의원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 (충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청주시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원 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연종석 의원	 박성원 의원	 박형용 의원	 서동학 의원	 송미애 의원



부의장
황 규 철



부의장
심 기 보

위 원



서동학 의원



윤남진 의원



임영은 의원



정상교 의원



하유정 의원



허창원 의원



이상욱 의원
(청주시 제1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옥규 의원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정상교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
(음성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
(보은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
(증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탁 의원
(단양군 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의령 의원
(청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의원
(청주시 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의회 전화번호	
의 장 실	220-5000~02
신관6층(F.5009)	
부 의 장 실	220-5003~04
비 서 실	220-5005~08
더 불 어 민 주 당	
대 표 의 원 실	220-8257~58
자 유 한 국 당	
대 표 의 원 실	220-8255~56
의회운영위원회	
신관5층(F.5019)	
운 영	220-5010~15
입 법	220-5171~73
정책복지위원회	
신관7층(F.5029)	220-5020~24, 28
행정문화위원회	
신관4층(F.5039)	220-5030~35
산업경제위원회	
신관7층(F.5049)	220-5040~4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신관2층(F.5059)	220-5050~55
교 육 위 원 회	
신관3층(F.5069)	220-5060~65
의회사무처장실	220-5196~97
신 관 6 층	220-5100
비 서 실	220-5102
총 무 담 당 관	
신관6층(F.5119)	220-5110
총 무 팀	220-5111~17
홍 보 팀	220-5121~29
의 회 자 료 실	
동 관 1 층	220-5187~88
의 회 기 자 실	
신관3층(F.5299)	220-5296
의 사 담 당 관	
신관6층(F.5159)	220-5150
의 사 팀	220-5151~55
기 록 팀	220-5161~70
본 회 의 장	220-5185



오영탁 의원



윤남진 의원



이상정 의원



이옥규 의원



이의령 의원



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하유정 의원



충북도의회는 7월 1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제366회 임시회 주요내용

충청북도·도교육청 을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 도민의 삶 촘촘히 챙기며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제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새롭게 출발한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제11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 임시회를 열어 ‘2018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민선 7기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7월 11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박우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인원수를 현실화하자’를 주제로 개정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2018년도 실·국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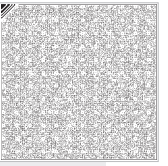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의료원, 행복씨앗

학교 9개소, 국제소방환경기대회 개최지 등 도정 주요사업을 현지 방문하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서동학·이옥규·이수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충북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균형적이고 공정한 행정 최우선돼야’, ‘라돈의 공포에서 벗어나자’를 주제로 각각 개선을 촉구했다.

장선배 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과거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도민의 열망과 시대적 흐름을 담은 미래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여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유치 확정 환영! 충북도와 공조해 최선 다해 지원할 것”

도의회,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유치 강력 촉구… 결실 맺어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7월 6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가 제안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혁신도시는 접근성에 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3개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전국에서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국토교통의 중심지이나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방전문종합병원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통합청주시 관문인 청주IC 인근에 위

치한 석소동은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등 교통접근성이 월등함에 따라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동 지역에 유치될 경우 비수도권 부상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이용률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환영 성명

도의회는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가 7월16일 충북혁신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도의회는 환영 성명서를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 중부권, 더 나아가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치유와 힐링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유치 건의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에 충북 3곳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접근성 측면에서 충북혁신도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수도권에서는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국토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접근 편의성과 지역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연인원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게 되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이주가 활성화되어 이용률 담보는 물론 충북혁

신도시 클러스터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비축 토지를 관리전환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부지매입 부담이 없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관문인 청주IC 인근에 위치한 석소동은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과 연계된 교통접근성이 월등하며 비수도권 부상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는 4만여 전국 소방공무원은 물론 163만 충북도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8년 7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토론회

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치밀한 사전준비, 지역현안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개선



충북도의회는 7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새롭게 출발한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의원 국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의회는 7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학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국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여론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연수 본래 취지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이상식 대변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의 ‘해외연수의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주제발제에 이어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 박호표 청주대 교수,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정란수 교수는 “연수가 갖는 장점을 고려한 중립적 시각 접근이 필요하다”며 “외유성 연수 지양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마련부터 연수일정 수립, 결과 보고서 작성, 사후 의정활동 연계까지 전문기관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불신이 연수의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도민 신뢰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로 직원 의존도를 탈피해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호표 청주대 교수는 “연수는 제도보다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대과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소과제로 나눠 팀별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아 의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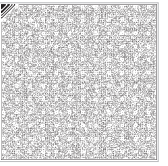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관광성 연수로 무용론이 대두되는 만큼 ‘개혁’에 가까운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관광 일정 최소화, 도민이 참여하는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공무원외여행심사위 내실운영 등을 주문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은 “관광성 일정이 많고 연수 효과도 불분명한 현행 시스템의 개선과 근본적인 프로그램 내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타 시·도와 해외사례를 들어 국내·외 연수를 병행하는 방식과 사후 보고회 개최,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의 방법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외연수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역현안과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식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향후 연수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은 “연수 목적에 맞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적합한 연수지역 선정, 사후 연수결과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의정에 접목 하겠다”고 밝혔다.



폭염피해 현장점검·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 총력 예비비 우선배정 등 예산 신속집행 충북도에 요구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1일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사과농장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피해현황을 듣고 대책방안을 모색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지난 7월 17일부터 연이어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도의회가 이번에 실시한 현장점검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내 취약계층 쉼터 운영 및 축산·과수 농가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수렴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북도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8월 1일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양계 사육장인 장원농장 현지를 방문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양계사육의 문제점과 농장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사과농장 일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과수농가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과 대책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월 30일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 위원들이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 등 시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꼼꼼히 살폈다.

이날 장선배 의장과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일행은 청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사랑의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관련시설을 꼼꼼히 둘러본 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 위원들이 8월 6일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사담계곡과 화양동계



장선배 의장과 정책복지위원들이 7월 30일 폭염 취약계층인 청주시 '사랑의집' 등을 방문해 시설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곡 현지를 방문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에게 무리한 야외활동으로 온열질환 야영객 발생 시 신속 대처해줄 것과 안전관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도내 주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습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청취한 후 관련시설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복구에 따른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위로했다.

장선배 의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 등 피해복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충북도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8월 6일 괴산군 청천면 일원에서 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경쟁력 있는 충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



황 규 철 부의장

21세기 세계 국가발전 기본 모델은 분권과 분산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 맞춰 충북도의회도 항상 도민 편에서 소통·의지하며,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충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의장으로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의 요구와 바람에 귀 기울여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충북도가 도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견제·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셋째, 도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넷째, 제대로 된 정책 제시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충고, 그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할 것”



심 기 보 부의장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장선배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일등경제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문제 지원방안과 경제활동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건강, 생활,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으며, 163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고 도내 균형발전과 문화부흥을 통해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공감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으로 공감 받는 성숙한 의회 운영”



김 영 주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제11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도의회가 충북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성숙한 지방의회로 거듭나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라는 도민 여러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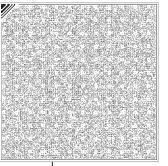
엄중한 목소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

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제11대 도의회의 슬로건인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구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충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



박 상 돈 위원장
(정책복지위원회)

제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바람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걸맞게 올 한해 충청북도 예산 중 정책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40%가 넘을 만큼 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의 삶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가운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와 중앙에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163만 도민의 평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열린 의회, 소통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통하는 상생의회 정립과 도민 문화생활 증대”



전 원 표 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먼저 제11대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정의 홍보를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문화예술의 진흥, 관광과 체육의 활성화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저는 도의원이 되고자 했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어 도정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실한 민의(民意)의 대변자가 되어 함께 도정을 만들어 가고 다 같이 나누며, 모든 도민이 다채롭고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민이 행복하고 소상공인이 즐거운 충북건설”



박 우 양 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영업·소상공인이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분야와 FTA체결에 따른 다양한 농업분야 지원 대책, 유기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등 농업과 농촌의 활력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와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다양한 민원해결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항상 어려운 농촌현실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직시하여 농민이 행복하고 소상공인이 즐거운 사회건설에 노력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경청·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실현”



이 수 완 위원장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집행부와의 건강한 견제·감시·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 차원 더 발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결정,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시켜 본래의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지식과 정책능력을 쌓아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차원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 주요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이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견제·감시, 상생·협치의 교육위 운영”



이 숙 애 위원장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제11대 의회 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숙애입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성과 인성,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흡한 분야에 대한 연구·노력으로 교육분야가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으로 상생과 협치의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꾸준한 소통과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공감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견제와 감시로 함께하는 충북 구현”



연 종 석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족한 저에게 충청북도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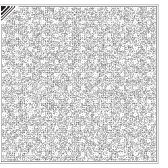
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도의 전 지역이 골고루 합

계 잘 살고 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차단하여 서민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

상호간 우호증진·실질적인 교류확대 방안 논의



중국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리시엔강 부주임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8월 6일 충북도의의회를 방문하여 장선배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우호교류 확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의회가 6일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인민대표회의의 대표단을 만나 우호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장선배 의장과 황규철·심기보 부의장, 김영주 운영위원장, 이숙애 교육위원장, 이상식 대변인 등이 리시엔강(李显刚) 헤이룽장성인민대표회의의 부주임 등 대표단 일행과 양 도·성간의 교류확대 방

안을 협의했다.

리시엔강 부주임은 “충북도와 헤이룽장성간 교류협력은 경제무역을 비롯해 농업·임업·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우호교류가 양 의회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며 “양·도성간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대표단은 농협한삼인 증평공장과 충북도 대표기업인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현지 시찰하는 등 충북도와 헤이룽장성 간 기업교류 확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도의회와 중국 헤이룽장성 인대는 2001년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뒤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신뢰관계를 돈독히 다져왔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도의회 될 것”



이 상 옥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11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도의원 모두가 도민의 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

하고 성실하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의회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모두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엄격히 심판하여 163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도의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가 7월중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7월 6일에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 정례회 2차례, 임시회 3차례 등 총 5회에 걸쳐 86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운영하기로 한 「2018년도 하반기 충청북도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하기 위한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

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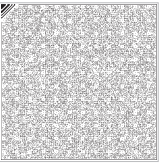
이어, 7월 11일에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은 “올해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선진의회 실현과 공감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정발전 견인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 20일에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육미선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열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하기로 협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기타 현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도민 평생복지를 위한 지혜와 역량 결집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13일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3차례 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청주의료원,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등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박형용 의원은 여성정책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30%에 불과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계량적 수치 달성보다는 개선율 등의 질적인 목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보 의원은 충북학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등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와 비교했을 때 충북학사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20만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육미선 의원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와 관련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장학사업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 유행주의보 알람서비스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에서 “지역과 연계한 특화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충북학사 선발기준을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우수한 재능을 갖춘 인재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경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조사 및 연구가 국비의존 사업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비닐봉투 저감방안, 조류독감 추적 경로 연구 등의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복지위원회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충북도정 구현을 위해 막중한 소임을 도민으로부터 명받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며 도민이 행복한 충북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세 차례 위원회를 열어 공보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전원표 위원장은 도민홍보대사의 자격·지원내용 등과 관련해 “향후 SNS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홍보대사 모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을기업 지원예산의 재원·규모에 지원과정 뿐 아니라 마을기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철흠 의원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세계화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추진 해야 한다”며 “청남대 임시정부기념사업에서 임시정부 국가수반선정과 기념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청주시 백제유물전시관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미애 의원은 “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포럼 등이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간의 도출된 정책들을 요청했다. 또, “주 52시

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가용시간을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예술인 창작활동 범위와 지원금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교 의원은 “예산에 맞추기 위한 잦은 설계변경, 저급자재 사용 지양 등의 공직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범적인 납세자 표창 등의 납세독려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대상을 신중히 검토해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창원 의원은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4위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청렴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 NGO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 도민이 원하는 역량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기관유치를 위한 투자활동 시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은 “사후 감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함으로 일상감사를 보완하는 등 감사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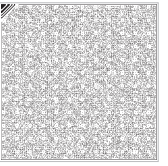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근거 마련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1일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양계농장인 장원농장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듣고 첨단 양계 사육시설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제11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7월 11일 실시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급증에 따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의 대상을 기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 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이어, 7월 13일까지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등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먼저, 경제통상국 등의 경제분야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하여 충북도에서 중심을 잡고 처리해줄 것과 태양광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지역단위·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공항중심의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청주공항에 대한 적합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하고 “충북도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충북 테크노파크가 도내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정국 등의 농정분야에서 보조사업 추진 시 시·군의 부담비율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고,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스마트 팜 등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민들이 지역에서 재배한 각종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7월 18일 옥천 포도연구소와 영동 와인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시설과 재배시설 등을 점검하고, 7월 19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를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바이오 핵심원천기술 보유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 당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로 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도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7월 1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충북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병진 의원은 “충북도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히 점검하여 도민들의 안전으로 직결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법적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남진 의원은 “지나해 7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청주를 비롯한 괴산, 증평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선제적인 자연재난 예방사업 지속 추진과 위험요인 분석, 피해이력을 관리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7월 16일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등

5개 기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연종석 의원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가 연례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개최 후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평가돼야 하겠지만 해외바이어들이 많이 참가해 본 행사가 특성화·명품화·세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탁 의원은 “교통연수원이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례별 안전행동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어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캠페인을 시·군까지 확대해 찾아가는 안전캠페인이 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창 의원은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박병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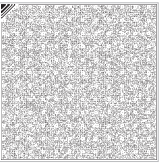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월 12일과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관리실, 균형건설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여학생 체육활성화 학교 성인지적 관점서 운영 등 촉구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임기중 의원



황규철 의원



교육위원회는 7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양질의 충북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행복지구사업 운영 현황과 주 54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 등·하교 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서동학 의원은 “행복지구사업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의 지원이 예산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자체로 담당직원 파견 등의 업무협조를 확대·강화시켜 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하는 교육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모두가 행복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내실 있는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과 태도함양에 교육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황규철 의원은 “행복지구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며 “세부사업별 책임소재와 담당직원 업무분담의 명료화 등을 통해 불용액을 줄이고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원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도내 모 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 사후처리에 대해 질의하고 “공식사과나 담당 교사의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시험문제 출제 시 교차검토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의영 의원은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학생들이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중 의원은 청주 동남지구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동남지구 입주 주민들의 학교교육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설립 계획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시·도 간 교차 감사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하여 감사의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고 “여학생 체육활성화 학교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원내 교섭단체 인원 수를 현실화하자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교섭단체는 여·야간, 정당 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하여 갈등소지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들 간의 협치를 이루며 의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을 보면, 경상남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을 전체의원 대비 10% 이상의 의원수를 조례로 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의원 중 8%정도인 12명을 교섭단체 인원으로 규정했으며, 제주도의회도 43명의

의원 중 약 9%인 4명을 원내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 으로 규정했습니다.

각 광역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최소인원을 10%로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대비 구성최소 인원을 비율로 환산할 경우 10%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다양하게 있고 의회는 이들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을 숫자가 아닌 의원정수에 일정한 비율로 부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도 현재 교섭단체구성 최소 인원수 5명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경상남도의회처럼 의원정수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북도 과수 화상병 방제대책 개선 필요



서 동 학 의원
(교육위원회)

올해 5월 29일 제천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2개월여 간 확산되어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백운면 일대 지역 62농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도에서 과수 화상병의 확산을 막고자 나름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확진판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진단하고 현장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처리절차 및 매뉴얼

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물 작업을 끝낸 장비가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작업에 투입된 장비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제과정에서 전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과수 화상병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지 인근 사과·배 과수원에 대한 정밀예찰과 예방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지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은 폐원 후 3년간 사과·배 등 기존식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방제 완료된 과수원의 손실보상금, 과수 농기계에 대한 피해보상, 대체작물 재배교육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이고 공정한 행정 최우선돼야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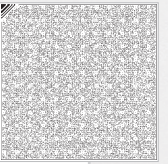
민선7기 충북도가 지향하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학연·지연·혈연에 치우치지 않고 이 시종 지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균형적이고 공정한 도정운영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에서는 163만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 문화향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대 충북도의회 첫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자료 중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을 조차 표기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전체 32석중 자유한국당 의석이 4석이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자주 들곤 합니다만, 장선배 의장께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보이고 있는 학연, 지연 등에 치우쳐 행정의 공정성을 상실한 예산과 지사님의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163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다함께 쓴 소리를 내고 바로잡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이 수 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최근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대해 행정조치와 수거·폐기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택의 라돈측정은 2011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3개월 간 전국 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수거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환경부 장관이 라돈 무료측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는 신청자 폭주로 내년까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충북도는 도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한 곳도 라돈 간이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아 도민 모두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돈 매트리스로 인해 충격에 빠진 도민들의 불안해소와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 추정 때 라돈 간이측정기 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정의 근본입니다.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의 빠른 결단과 대책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제366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간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구축·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와 기능, 구성(안 제2조~제3조)
 -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심의
 - '민관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안 제4조~제7조)
 -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 (안 제8조)
 - '실무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 '청렴업무 담당부서장, 민관협의회 위원은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에 준하는 사람 등
-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 수당 등(안 제12조)
 -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중장년 세대 급증에 따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충북의 중장년⇒전체 인구의 32.7%, 생산가능인구의 46.2%
 - '18, 2월말 기준: 522,621명
 - 40~49세: 254,826명 - 50~59세: 267,795명)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장년 대상 사업 포함(안 제5조)
 - ※기대효과
 -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년층을 이루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제안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요내용]

-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참혹한 현장에 육체적·정신적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으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 지역접근성 측면에서 충북혁신도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3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전국에서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국토교통의 중심지이지만 아직까지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 시·지·인·산·인·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소방전문 종합병원의 건립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통합청주시 관문인 청주IC 인근에 위치한 석소동은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과 연계된 교통접근성이 월등하며, 비수도권 부상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이용률도 많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소방공무원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북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함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는 7월 5일 제11대 의회 개원식을 마치고 도청 구내식당에서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 축하연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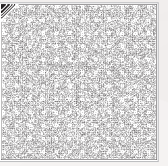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의원들이 제11대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와 의지를 마음에 새겼다.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7월 18일 이시종 도지사과 서울 충북미래관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8월 15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된 '제73주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을 되새기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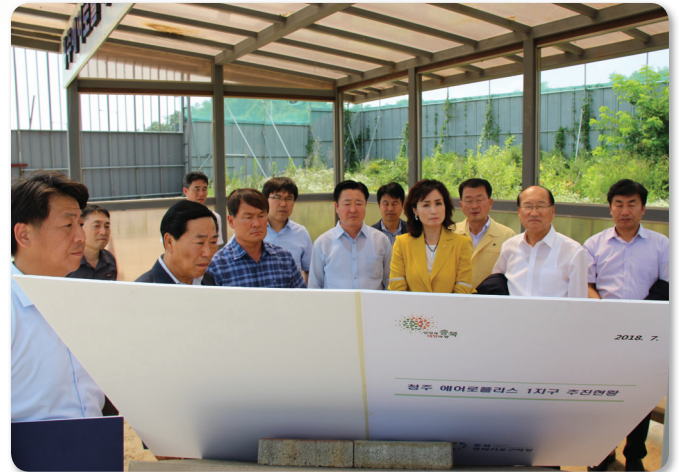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기타 현안들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16일 충북도립대학을 방문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들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과 기타 현안들을 협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9일 청주시 내수 에어로폴리스 사업현장을 방문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월 6일 괴산군 사담계곡 및 화양동 계곡 일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는 7월 16일 행복씨앗학교인 수곡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문제점 및 개선점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8일 옥천 포도연구소를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7일 충청북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과 기타 현안들을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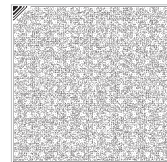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8월 16일 청주시 현암동 '사랑의 집'을 방문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직원들이 7월 25일 폭염속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비만의 예방법



이예주 1내과장
(청주의료원)

2018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세계적으로도 최 상위권에 속해있다. 이제 80세까지 사는 것은 결코 장수했다고 말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장수하다 보니 자연히 노인의 경우 성인병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성인병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성인병 발병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유전적 소질(체질)과 환경인자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유전적 원인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요도나 관여도가 미미한데 비해 환경적 원인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개의 성인병은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발생되며, 이 가운데 중요한 인자라고 고려되는 것으로 비만, 과식, 과음, 흡연, 스트레스, 유해환경에 장기간 노출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중 요즘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만의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고열량식품 즉, 단음식, 기름진 음식, 술 등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때까지 유지하던 식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으로 식사량을 반감함으로서 섭취되는 열량(Calories)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까지 한 공기 먹던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피자 두 조각 먹던 것을 한 조각으로, 맥주 두 잔 마시던 것을 한 잔으로 줄이는 노력만 기울이면 비만은 예방된다.

둘째,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 다 이터트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조건 먹지 않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단백질(고기), 야채,

과일 등 저열량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여 열량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저열량 음식물로 줄어든 식사량을 대신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운동의 종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체력이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여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산책), 조깅, 맨손체조, 줄넘기, 수영, 달리기, 등산 등 어느 것이던 자기 상황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만의 경우, 부득이하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극히 소수에 속하며, 병적비만(morbid obesity)의 경우 약물의 힘을 빌리거나 수술까지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감시하에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약물은 미국 FDA공인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만 소기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치료상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보통 사람의 경우 하루에 1,800Cal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끼에 600~700Cal의 식사를 하는데, 쌀밥 한공기가 400Cal의 열량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음식의 수는 줄이지 않더라도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임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녁 식후, 취침전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며 저녁을 넉넉히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면 저녁식사 때 섭취된 열량이 고스란히 체중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급격한 체중감량의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해서는 안된다.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 형 용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행복은 누구나 꿈꾸는 인생의 목표이다.

행복이란 사전에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육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이란 용어가 유행처럼 회자되며 행복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확산과 인식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통해 더 많은 재화를 확보하는 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로 여겨왔다. 이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예외 없이 경제성장 지표에만 치중했지 정작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서는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이스터린 교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일본국민의 행복감은 1958년에 비해 국민소득이 다섯 배 오른 1987년도의 행복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또한, 유엔에서 발표한 ‘2018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156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는 세계 27위인데 비해, 국민 행복수준은 57위에 그치고 있다. 이런 통계치는 경제적 조건이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희생에 기반한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버리고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의 제도·정책이 ‘구성원의 행복’에 수렴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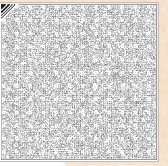
최근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는 예외 없이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핵심비전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부 전략사업들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11대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이 전반기 의정운영 방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으로 도민행복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저자인 오연호 작가는 세계가 인정한 행복국가인 덴마크의 행복요인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자유 △노후 및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 △직업에 귀천이 없는 평등문화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에도 저항 없는 정치·행정에 대한 국민신뢰 △활성화된 이웃공동체 문화 △친환경적 생활환경 구현 등을 꼽았다. 이는 우리 충북의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필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열어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오롯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년 임기를 마칠 때 163만 도민께 마음에서 우러난 큰 박수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 ● ● 초선의원의 한달



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 하루를 지내는 것이 예전에 비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뜨거운 날을 보내는 것이 지역 주민들 보다는 한결 수월한 편이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도민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든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이 바라는 의원의 모습도 그때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힘겨운 과정을 겪고 의원이 되어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시작한다.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어도 막상 책상에 앉으면 생각이 안나는 때가 왕왕 있는 것처럼 의원이 되고 준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도 있었다.

그리고 짧은 한달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러 갔을 때이다.

각 부서에서 팀장급 이상 수십명의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적지않이 놀랐다.

원활한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고 저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뺏는다면 도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좋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의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함을 새삼 느낀다.

또한 의원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된다. 대부분 많이 노력해보고 해결이 안될 때 찾아오는 민원들이라서 의원들 또한 해결해드리기가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 또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오시는 분들이시라 그저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고마운 세상이 된 것이 웬지 마음이 편치는 않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지방 의원의 본을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지역 주민들에게 했다. 그런 나의 이야기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믿어주셨고 응원해 주셨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난후 당선 인사를 하는 현수막에 ‘평상시에 찾아뵙고 겸손하게 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더욱 공부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길 희망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만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좋은 의원으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 번 기도해 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